

<독립과 발명> 기획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만나다!

- 특허청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복80년·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독립과 발명’ 기획전 협업 전시 -

제1호 한국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 제1호 미국 특허출원 한국인 권도인 선생의 대나무 커튼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광복80년 및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6. 30.(월)~8. 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독립유공 발명가를 조명하는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15일 정부대전청사 1층 발명인의 전당에서 먼저 개막되어, 발명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실천한 독립유공 발명가들의 이야기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뜻깊은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의 순회전이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전시관으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연중 수많은 내·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발명’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일제강점기 독립의 실천적 수단이었음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와 발명이 만나는 새로운 관점을 관람객에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전시에 소개되는 인물은 ▲말총모자 발명으로 한국인 최초 특허권자가 된 정인호 ▲하와이에서 대나무 커튼을 발명하여 사업을 일구고 독립자금을 후원한 권도인, ▲참쌀엿식 사탕을 개발한 강영승, ▲생활 속 발명과 저술로 조선 독립을 외친 장연송, ▲낙숫대를 발명한 박영로 선생 등 독립유공발명가 5인이다. 전시에서는 선열들의 업적과 함께 대표 발명품이 소개되어 전시의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광복80년 및 발명의 날 60년을 함께 맞는 올해, 이번 전시는 발명이라는 창의적 활동이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실천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독립과 발명 기획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순회전시 사진 및 포스터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담당자	주무관	임지수 (042-481-8643)



박영로 선생
“낙식대”



광복 80년 X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을 맞아, 지식과 기술로 조국의 자립을 실현하고자 했던 독립유공 발명가 다섯 분의 대표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발명이 단순한 생계의 수단을 넘어 독립 정신을 실현하는 도구였던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헌신을 되새기며, 창의와 실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하는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인호 선생
“말총모자”

권도인 선생
“대나무 커튼”



강영승 선생
“참쌀엿과 콩나물 캔닝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만나는 특허청 순회전

Independence and Invention

독립과 발명

기간 2025.6.30.~8.31.

장소 3층 전시실

내용 독립유공 발명가 5인의 생애와 대표 발명품

장연송 선생
“자유장”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